

* 팀NO : 2018 하양리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1. 국가팀명 : 하양리 (팀) 공항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3. 사역기간 : 2018년 9월4일(월) ~ 9월29일(토) / (5)박(6)일

선교위원회 확인

담당

분과장

위원장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장로	노은영 Ro Eun Yeong	15		92-62					
2	총무	"	이창희 Lee Chang Hee	1		86-24					
3	서기	"	김영주 Kim Young Zoo	5		82-208					
4	회계	"	김명성 Kim Myoung Sung	8		92-49					
5	의료	"	구원섭 Koo Won Sub	15		86-125					
6	봉사	"	문호식 Moon Hyosik	4		87-653					
7	"	"	박재현 Park Jaehyun	7		92-143					
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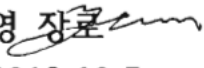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김영주

미얀마9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8년 9월 24일~2018년 9월 29일 (5박 6일)
2. 팀 NO : 2018-~~309~~9.
3. 국가 팀명 : 미얀마 9팀 (사역지 ; 인센지역)
4. 팀 장 ; 노은영  서기 ; 김 영주 
5. 보고 일자 : 2018.10.5.
6. 사역 일지

1.상세 사역 내용 및 총평	1.6명의 인원이 일사분란하여 팀훈련에 불참하는 이가 없이 팀훈련. 언어훈련.기도회.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2. 선교방향이 팀훈련시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통역이 있어 선교하는데 커다란 도움이됨 4. 인원이 최대12명까지 있었으나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 5. 어린이사역과 축호전도. 노방전도. 기차사역을 하였음 6.기차사역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수 있어서 좋았음 ※ 선교 사역 내용 첫째날 : .인센 지역 미얀마 선교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어린이선교사역 및 주변 축호전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어린이 사역과 노방 전도 및 각호 방문사역을 함 둘째날 : 미얀마 로댐교회(한국인 선교사운영)를 방문하여 미얀마 선교 상황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한국인 장로님이 개설한 공부방에서 청소년 사역을 함 셋째날 : 양곤 시내 호수공원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양곤대학 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생, 교수, 직원들을 상대로 노방전도 를 함 넷째날 : 기차 사역 등등
2.추천할 내용	8개의 종족이 있어 통역이 필요함
3.개선할 내용	선교언어를 좀더 연구하여 종족에 맞는 맞춤형언어의 필요성
4.선교위원회 건의사항	8개의 종족중 어느종족 선교를 할것인지 결정하여 언어훈련 충현교회가 임명한 선교사가 있으면 함 충현교회가 세운 교회를 센터로 하여 선교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음

2018년도 · 단기선교팀 사후평가 내용

팀 번호 : 미얀마 9팀 소속 : 장로팀 팀장 : 노은영 장로
 파송국가(사역지) : 미얀마 (인선) 사역기간 : 9/24(월) ~ 9/29(토) .. (5)박 (6)일
 면당 대상자 : 서기() 회계() 기타(총무) 직분 : 장로 성명 : 이창희

1. 사역은 정해진 사역지에서 실시하였는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였다면 그 사유는?

- 도착공항 : 양곤 • 사역지 : 인선 (공항에서 10 KM)
- 공항에서 사역지까지의 교통편 및 소요시간 : (차중) (소요시간)
- 차량 렌트비 총액 : \$ (1일 \$)
- 숙박비 총액 \$ (2인/1실 당 숙박비 \$)
- 사역지 변경시 사유 :

2. 사역의 방법과 현지의 영적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사역의 박해 등)

- 사역방법 : 축호전도(○), 노방전도(○), 캠퍼스 사역(○), 기타()
- 영적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 :

3. 사역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해결방법은

○ 선교위원회에서 배운 언어와 현지인어 통통되는 언어가 될 경우가 많았다.
 언어장사를 배마족 언어선생님 생와와 미얀마 언어 정비가 필요함

4. 팀장 및 팀원 모두가 사역기간중에 선교방침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사역에 동참하였는가?

- 선교방침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개인 휴대품, 음식 등)
- 선교방침대로 사역하였음.

5. 팀 훈련 및 준비과정, 사역과정에서 느낀점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밖에 선교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미얀마 언어(필수) 정비가 필요함.

6. 이번 사역을 통해 은혜 받은 내용, 또는 현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미얀마 양곤 시메공리와 양곤대학에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잘 받아들였음. 미얀마 복음화에 열매맺음을 받게 되겠으며 이때 열심히 전파
 할수있는 기도를 하겠다.

< 평가위원 의견 >

20 년 월 일

수 평가위원 : (직분) (성명)

20 / 8 년도 · 단기선교팀 사후평가 내용

팀 번호 : 비안바 9팀 소속 : _____ 팀장 : 노은영
파송국가(사역지) : 비안바 (인생) 사역기간 : 19.24 ~ 19.29 (✓) 박 (6) 일
면담 대상자 : 서기 () 회계 () 기타 () 직분 : _____ 성명 : _____

1. 사역은 정해진 사역지에서 실시하였는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였다면 그 사유는?

- 도착공항 : _____ • 사역지 : _____ (공항에서 KM)
- 공항에서 사역지까지의 교통편 및 소요시간 : (차증) _____ (소요시간) _____
- 차량 렌트비 총액 : \$ _____ (1일 \$ _____)
- 숙박비 총액 \$ _____ (2인/1실 당 숙박비 \$ _____)
- 사역지 변경시 사유 : _____

2. 사역의 방법과 현지의 영적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사역의 박해 등)

- 사역방법 : 축호전도 (○), 노방전도 (○), 캠퍼스 사역 (○), 기타 (기타 4역)
- 영적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 : _____

대체로 수동적 태도 보임

3. 사역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해결방법은

우리가 배운 선교 언어가 부족한 비바족 언어가 인하여
수동적 어려움. 언어 훈련이나 수동 비바족 비안바 언어 훈련

4. 팀장 및 팀원 모두가 사역기간중에 선교방침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사역에 동참하였는가?

- 선교방침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개인 휴대품, 음식 등)

모두 협력하여 잘 리함

5. 팀 훈련 및 준비과정, 사역과정에서 느낀점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밖에 선교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6. 이번 사역을 통해 은혜 받은 내용, 또는 현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비안바는 이집트를 사역으로 충분히 소요 가능.

< 평가위원 의견 >

20 년 월 일

☞ 평가위원 : (직분) _____ (성명) _____

20 년도 · 단기선교팀 사후평가 내용

팀 번호 : 비야마 9팀 소속 : 희 계 팀장 : 노은영 장로
 파송국가(사역지) : 태양마 (인센) 사역기간 : 9/24(월) ~ 9/29(토) .. (5)박 (6)일
 면담 대상자 : 서기() 회계(0) 기타() 직분 : 장로 성명 : 김병성 장로

1. 사역은 정해진 사역지에서 실시하였는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였다면 그 사유는?

- 도착공항 : 양곤 • 사역지 : 인센 (공항에서 10 KM)
- 공항에서 사역지까지의 교통편 및 소요시간 : (차증) (소요시간)
- 차량 렌트비 총액 : \$ (1일 \$)
- 숙박비 총액 \$ (2인/1실 당 숙박비 \$)
- 사역지 변경시 사유 :

2. 사역의 방법과 현지의 영적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사역의 박해 등)

- 사역방법 : 축호전도(○), 노방전도(○), 캠퍼스 사역(○), 기타()
- 영적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 :

불교상황이 굳건한데 복음의 장 담고 장 받아 있음

3. 사역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해결방법은

- 1) 비야마 연어가 비야마쪽에 연어가 교회에서 배운 연어가 통하지 않았다
- 2) 비야마 연어 강사가 장로가 필요함

4. 팀장 및 팀원 모두가 사역기간중에 선교방침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사역에 동참하였는가?

- 선교방침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개인 휴대품, 음식 등)

선교 방침에 순종하였음.

5. 팀 훈련 및 준비과정, 사역과정에서 느낀점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밖에 선교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현장 사역에 더욱 더 치밀한 준비, 사역의 필요함.

6. 이번 사역을 통해 은혜 받은 내용, 또는 현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한국어를 배움에 하는 많은 젊은이. 대학생이 있어서
현장 교회를 세워 생명을 한국에 가르치며 복음화하는

< 평가위원 의견 > 교회를 세워 줄 것이다

20 18 년 월 일

☞ 평가위원 : (직분) (성명)

더킨예수교 깨닫신 아빳 용지 세친바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선교 9팀
장로 노 은 영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 6명은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5박 6일동안 온 나라가 불교로 가득 차고, 일상생활이 불교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 미얀마 땅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미얀마 선교가 세 번째이었지만 여전히 미얀마는 선교하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로템 한국어학당(한국 선교사 단체) 출신의 통역사들과 같이 선교를 하게 되어 언어 전달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선교 첫날 오전은 미얀마인 전도사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주위의 축호전도를 시작으로 선교를 시작하였다. 매번 미얀마 선교를 와서 느끼는 일은 이들은 왜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을 못 벗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으며, 왜 감당 못할 만큼 자녀를 많이 나아 힘들게 생활을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아멘!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많구나 하고 느꼈다,

이렇게 시작한 선교는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한국어 학당 출신 미얀마 여학생의 도움을 받아 가며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며 선교활동을 펼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이튿날은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모템교회(한국어학당 운영)를 방문하여 미얀마의 기독교 역사를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미얀마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203년 전 이라고 한다. 그러나 버마족이 주축을 이루는 미얀마에서는 버마족(68%)과 소수민족

(산족(9%), 카렌족(7%), 라킨족(4%) 등등)간의 갈등에다가 전체 인구의 90% 가까운 불교인의 탄압이 하도 심하여 기독교가 번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국가 정책마저도 기독교 선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라 선교사들이 활동하기가 매우 힘들고 교회를 세웠다 해도 예배는 물론 교회 출석마저 방해하여, 폐허화된 교회가 부지기수라 한다. 같은 가족들끼리도 기독교를 믿으면 그 가족은 가족의 일원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한다니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나라인가?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갓은 뽕박과 뽕방 속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재산과 몸을 바쳐 가며 선교에 헌신하는 한국 장로님이 운영하는 자비량 공부방을 방문하였다. 오후 3시가 되면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 까지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다. 종이 접기와 자르기를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HELL(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와 구슬레기 등을 통하여 선교하였다. 은퇴 후 노년을 안일하게 보내는 나에게서는 그 장로님이 큰 도전이 되었다.

셋째 날에는 우리 모두 노방 전도에 주력하기로 단단히 마음먹고(무더운 날씨로 아주 힘들었음) 양곤 시내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에서 노방 전도를 시도하였다. 우리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제각각 흩어져 노방 전도를 하였다. 많은 미얀마 사람을 만났고,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었다.

또, 오후엔 양곤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기로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교 하는 대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을 상대로 선교하였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처음 말걸기를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시도하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운다는 학생도 몇몇 있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도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듣다가 영접 기도를 시도하면 자기는 “붓다”라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력으로 선교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하며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는 미련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양곤 외곽을 다니는 기차에 승차하여 선교하기로 계획하고 옛날 우리의 교외선 같은 기차에 승차하여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승객을 상대로 선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었지만 이 기차는 좌석의 형태가 2인이 마주 보는 형태인데 다행히 4명이 앉아야 하는 좌석에 2명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선교하기가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선교하였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확신한다. 기차여행이라 가끔은 미안마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 선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 생각되어 열심히 선교하였다. 기차 승차 선교의 좋은 점은 우리가 “시간 좀 내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교를 거부하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6명)의 선교팀이었지만 교회의 장로로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출발 시간부터 귀국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지급해 주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느라 모든 팀원들이 애쓰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팀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주님께 이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차후에 또다시 선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장 설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멘!!

【미얀마 9팀 선교소감문】 : 이창희 장로

0 금년도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교회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장로들도 앞장서서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에 따라 참으로 오래 만에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0 장로로 구성된 팀이라 좀 더 모범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위원회에서 교육하는 대로 팀훈련, 영성훈련, 언어훈련, 외국인 전도(안산과 부평) 등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선교의 경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선교가 중요함을 다함께 느끼면서 그렇게 할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였다.

0 선교훈련 과정 중에 팀원 중 한명이 허리 아픔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어려움도 있었지만 6명이 추석연휴의 귀한 시간을 선교사역에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린다.

0 결론적으로 이번 선교는 그동안 많은 선교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선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온 선교였다.

0 총무로써 준비할 것이 많았으나 협력선교사인 조증덕 선교사님이 숙소, 차량, 사역지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준비해 주셔서 종전에 하던 준비보다 훨씬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어 좋았다.

0 선교사역 중에 받은 은혜를 선교위원회에 준 질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사역을 정리하면서 】

1.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던 때는?

0 인센지역 빈민촌의 방과 후 어린이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간식(빵과 우유)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올지 예측이 되지 않아 기도하는 맘으로 90명분의 많은 간식을 준비하였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갈 때 나누어 주는데 정확히 90명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2. 사역기간 동안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0 역시 무더운 날씨였다. 숙소는 에어컨이 있어 있을 만 했는데 사역지를 나갈 때는 30도 이상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땀을 많이 흘렸다. 다른 사람보다 땀이 많이 나는 나로선 힘들었지만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기도까지 따라할 때 힘든 줄 모르고 사역을 감당 할 수 있었다.

3. 금번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복음) 능력을 어떤 순간을 통해 체험했는가?

0 미얀마의 많은 청년들이 한국어학당에서 취업과 유학을 위해 한글을 배우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믿게 하심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도구(통역 등)로 사용됨을 보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게 되었다.

4. 귀국 후의 신앙생활에서 결단한 것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0. 복음전파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 선교는 그동안은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수지정권 이후 많이 열려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열려 있는 미얀마에 좀 더 기도하면서 선교를 힘써야 하며 특히, 버마족(약68%)에 대한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 금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요약한다면?

0. 총무로써 팀장님과 팀원과의 미미한 갈등, 선교현장에서 조그마한 갈등 등을 중재하는데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해결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6. 사역지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만을 쓰세요.

- ① 미얀마 인센 지역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만난 영혼 특히, 미얀마 청년들이 미얀마 복음화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② 협력선교사인 조증덕 목사님과 강영미 전도사께서 영육에 강건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미얀마 복음사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③ 미야트콩교회에서 어린이사역과 빈민촌복음사역을 하고 있는 박종석장로님의 사역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금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릴 일은 무엇인가?

0. 미얀마 양곤 시내공원과 양곤대학에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드렸으며,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는 것을 보고 미얀마 복음화에 희망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다.

8. 다음 사역을 위해 현지의 정보들 소개 한다면?

- 0. 미얀마에 여러 종족이 있는데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버마족(약68%)에 대한 복음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전략을 세웠으면 한다.
- 0. 우리나라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미얀마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편리한 공원이나 대학캠퍼스사역에 관심을 많이 두었으면 한다.

9. 선교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 0. 현재 훈련하고 있는 미얀마 복음언어가 많은 부분이 현지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그 이유는 지금 복음언어가 미얀마 소수종족이 만든 것 같음) 이에 보편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미얀마 복음전도 언어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0. 또한 교회에서 미얀마 언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버마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작용이 큼. 버마족의 미얀마 언어 선생님을 빨리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소 감 문

선교지 ; 미얀마 인센지역

선교 기간 ; 2018.09.24.~2018.09.29.

김 영주 장로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선교를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로 세워주시니 감사한 마음뿐이다.

마지막 선교를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약7년 만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장로로 팀을 구성하여 추석연휴기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도 참으
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6명의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팀 훈련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어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한 마음뿐이다.

드디어 미얀마 인센지역에 도착 하였다.

어두움이 캄캄한 이곳에도 과연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겠는지 믿음이 없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영혼 구원일까. 아니면 현재의 삶일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선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영혼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따라 그곳에 도착하였다

환경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성경 말씀에 공감이 갔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역시
아이들은 순진하고 깨끗한 영혼의 맑음이 찬양과 율동과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나의 마음에 나는 과연 얼마나 죄에 물들여 있을
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에게 그 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설명

할 때에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조금씩은 알아들었다

한국어를 아는 데는 드라마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것 같아 다행이었다.

그래도 미얀마는 불교가 주류였기에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젊은 청년들도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는 않는 느낌이었다.

본인들은 관심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고 그곳에서 만난 장로님은 사재를 털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그 곳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우리가 팀 훈련을 통하여 언어훈련을 하였지만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언어가 한 나라라도 단일어가 아니기에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통역을 붙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만날 영혼들이 또 만날 영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어 복음을 전하였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선교의 방향이나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의도된 대로 정해진 대로 하다 보니 우리와 다른 부분도 있었다.

좀 더 세밀하게 선교 전략을 세워서 불필요한 시간의 소비나 또 다른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서툰 언어로 비록 문화가 다르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로 하여금 전하는 기쁨을 주시어 마음껏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미얀마 9팀 선교소감문】 : 구원섭 장로

선교를 다녀 온지 제법 오래된 나에게 이번선교는 좀 색다른 면이 있었다.
사무장로 4명 은퇴장로 2명 총6명이 미얀마 인센지역을 사역지로
정하고 6월30일모임을 시작으로 9월24일 출발하는 팀훈련에 설렘으로
열심으로 임했다.

드디어 미얀마에 도착하여 도착 예배을 드림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얀마에는 조상대대로 불교를 대물림하여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선교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였다. 보용
지역에서 13년 동안 사역중인 선교사는 미얀마에 복음이 들어 온지 203년이
나 되었는데도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에 너무나 안타까웠다.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다 훌훌단신으로 미야다공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비
로 70여명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다

양곤대학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학생대부분이 한국어를 곧잘
했다 대부분학생들은 전하는 복음은 잘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잘 받아 들이지 않았다.

속히 미얀마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도드리고 이곳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였다.

짧은 기간 우리가 전한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 맺어지기를 기원했다.

【미얀마 9팀 선교소감문】 : 김명성 장로

복음, 기쁜소식을 전할수 있도록 사용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장로팀으로 구성된 미얀마선교사역은 정말 은혜이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순수한 모습에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며 예수그리스도외에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힘 있게 전하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은퇴장로님들과 함께 한 찬양과 율동으로
예수님사랑 전한 그 시간, 뜨거운 날씨 같이 놀라운 십
자가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찬양을 함께
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십자가위에 달리신 예수그리스도
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하면서 만나 많은 영혼들,,
전하여 준 복음 속에 성령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미
얀마를 깨우는 그루터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합니다. 김명성장로

미얀마 9팀 팀원 박 재현 장로 선교 사역 보고

교회의 선교 방침에 따라 저희 장로 3팀은
노방과 축호전도 C타입 방식으로 훈련받고, 준비하여
10년 만에 떠난 미얀마 선교는
첫날부터 현지 사역자 선교사를 지원하는
어린이 방과 후 교실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통역과 함께하는 선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지인들의 순수함에 감격하였고,
충현교회가 현지인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은
그간 다녀간 선교 팀의 사역에 익숙한 현지인 아이들의 모습과
또 다른 지역의 한국인 장로님이 자비를 들여세운 방과 후 교실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현지인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먼저 배운 아이들이
아래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영국의 식민지로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으나
불교가 현재 이 땅의 모든 생활양식을 지배하고 있으나
오래 전에 세운 교회가 시내에 그대로 있고,
타 교단의 선교 지원 시설과 열정적인 선교사들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양곤 대학교과 시내 호수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질문 등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모습에서
미얀마의 복음화는
기독교인이 1%이하인 미얀마 버마족부터 시작 될 것을
확신하며 양곤의 무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었다.